

위기의 제주농업 '미래비전'으로 새로운 도전

지속가능한 제주농업, 변화를 예고하다

1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등 운영

제주농업이 또 다른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디지털 과학농업, 제주농업 대도약'을 미래비전으로 내걸고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정의 1차산업 정책 방향과 기대효과, 발전적 대안 등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1 위기 농업, 돌파구를 찾다

농업을 포함한 1차산업은 제주가 지켜야 할 '생명산업'이다. 도내 경제를 지탱하는 중심축이기도 하다. 전국 1차산업 비중이 평균 1.8%인데 비해 제주는 10%를 넘어선다. 한 해 조수입은 2022년 기준 4조6000억 원을 웃돌고 있다.

이에 반해 위기감도 짙다. 농가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도내 농업인의 절반 이상(55%, 2023년 기준)이 60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도 심하다. 이외에도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업 경영비 상승, 농산물 소비 위축, 기후변화 등은 제주농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시대 흐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로 인한 장벽 없는 무한 경쟁,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디지털 전환 등이다. 이에 발맞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물결이어서다. 제주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할 '생존전략'이 더없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는 제주도가 최근 '제주농업 미래비전'을 선포한 이유와도 맞닿는다. 제주도는 1차산업의 돌파구를 위해 '농업시스템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청정농업'을 목표로 6대 추진전략을 꺼내놨다. 전국 최초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설립·가동을 비롯해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센터 설치·운영 ▷푸드테크 기반 제주농산물 가공식품산업 육성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확대로 농업소득 증대 ▷친환경 및 탄소중립 농업 기반 확대 등이다.

2 생산자 스스로 '수급 안정'

6대 전략의 선두에 선 것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다. 핵심은 생산자가 농작물 파종부터 수확, 판매까지 결정해 자율적

인 수급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농가들이 참여하는 생산자연합회가 적정 생산량, 수확 시기, 출하 물량 등을 적정하고 가격 안정, 소득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구조다. 여기에는 정부나 지자체 주도에서 벗어나 농가 자율적으로 수급 안정 체계를 마련한다는 큰 방향성이 놓인다.

생산자 주도의 수급 안정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산물 과잉 생산의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생산자가 직접 나서야 과잉 생산, 홍수 출하, 가격 하락, 시장격리 등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연쇄작용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주에서만 월동무 시장격리에 32억여 원이, 2022년에는 이보다 두 배가량 많은 약 63억원이 양배추, 당근, 양파 시장격리에 투입됐다. 한 해에 수십억 원이 시장격리에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게 된다. 감귤연합회, 당근연합회, 월동무연합회, 양배추연합회 등 7개 품목별 생산자연합회와 제주농협 품목별협의회 등이 회원으로 참여해 설립을 마친 상태다. 생산자연합회의 자율적 수급 관리를 지원하는 조직인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도 지난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3 성공 열쇠는 '농가 참여'

관건은 농가 참여다. 제주도 역시 농가의 참여가 확대될수록 수급관리연합회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 모델이 된 '(사)제주당근연합회'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고 제주도는 설명한다. 제주당근연합회는 2015년 설립 당시만 해도 492명의 농가가 참여하는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003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도내 전체 당근 농가 수가 약 1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농가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당근연합회를 중심으로 도내 재배 농가는 매년 생산량의 5~10%인 비상품을 자율적으로 폐기하고 있다. 열심히 키운 당근의 '제값 받기'를 위해서다. 상품 당근의 일부 규격을 가공용으로 수매하는 등 자조금을 활용한 출하 물량 조절에도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좋은 가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근



1 지난 4월 제주시 오라동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앞에서 열린 제주농업 미래비전 선포식. 2 제주시 구좌읍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 3 올해부터 제주산 월동무에 대해서도 생산자 중심의 수급 안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TF팀이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 생명산업에도 농가 감소·고령화 등 침체 우려 제주도, 농업 미래비전 선포에 6대 추진전략 공식화 전국 첫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농가 참여 관건"

평균가격(가락시장 상품 도매가격 기준)은 20kg 한 상자에 3만원 이상으로, 손익분기점(1만9000원)을 크게 넘어섰다.

고광덕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장은 "비상품 자율 폐기에 동참하며 가격 안정 등이 보장되는 것을 체감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당근 농가가 참여하게 됐다"면서 "처음엔 효과를 반신반의하던 유통인까지 참여하고 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엔 농가들이 이런 성과를 통해 기존과 다른 시스템을 경험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급관리연합회는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생산자 스스로 함께 모이는

생산자단체, 이를 지원하는 센터, 그리고 행정에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전체 농가에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4 디지털 과학농업 '도전'

수급관리연합회는 올해부터 본격 운영된다. 감귤, 당근을 대상으로 자율적 수급안정 시범사업을 마친 데 이어 올해는 월동무, 양배추까지 품목을 확대해 수급안정 매뉴얼을 수립한다. 2026년에는 정부 인가 '제주농산물 통합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가 선언한 '과학농업' 실현을 위

해 농업디지털센터도 발을 맞춘다. 올해 상반기 제주농업기술원에 신설된 센터는 농산물의 생산·유통, 수출입 등 데이터의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맡는다.

정장현 제주도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장은 "미래비전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농가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선 각자가 어떤 작물을 얼마나 재배하고 있는지, 기존에 어떤 작물을 재배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센터에선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제주에 맞는 생산량 등을 과학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 "수급관리연합회와 디지털센터가 함께 문을 연 것은 앞으로 제주의 미래 농장이 바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차세대 감귤산업, 농산물 가공식품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준비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이 기사는 한라일보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 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여행업등록 제234호

기획여행보증보험 2억 가입 업체

<p>제주출발</p> <p>동경 4일(재취항기념) 온천호텔 2박 동경/아사쿠사/후지산/신주쿠/오다이바 4일 (출발일: 일요일출발) 8월~10월 1,199,900원부터 #전일관광 #후지산케이블 #오시노호트키 #레인보우 브릿지 #다이바시티</p> <p>오사카/롯코산/고베/히메지 4일 (출발일: 매일) 7월~9월 899,900원부터 #무제한 게 카이세키 #온천호텔 1박 #히메지 #롯코산 #오사카</p> <p>시내호텔2박+트윈 오사카/아라시야마/고베/교토 OR USJ선택관광 4일 (출발일: 매일) 7월~9월 749,900원부터 #USJ선택관광 #도톤보리 #교토 #고베 #온천욕 #신시이바시 #리버크루즈탑승</p>	<p>제주출발</p> <p>싱가포르 5일 (출발일: 매주 수,금요일) 1일자유/노쇼핑 7월~8월 1,399,900원부터 전일관광/노쇼핑 7월~8월 1,599,900원부터 출발일별 요금 상이</p> <p>대만4일(낮출발) HIT상품 대만/화롄/아류/지우펀/스펀 4일 (출발일: 매일) 729,900원부터 (천둥날리기/특식4회) [5성호텔/101전망대]</p> <p>대만4일(저녁출발) 베스트초이스 대만/단수이/아류/지우펀/스펀 5일 (출발일: 매일) 899,000원부터 #5성호텔#단수이#천둥날리기 #아시아투어 #특식3회</p>	<p>무안출발</p> <p>몽골취항특가(진어어) [이비스호텔 금 2박+신게르 1박] 몽골/테를지 5일(7~9월) 몽골/테를지 6일(7~9월) (출발일: 매주 수,토요일) 699,000원부터 출발일별 요금 상이</p> <p>무안출발</p> <p>팀포함+NO음선+쇼핑1회 장가계 원가계 + 천문산 5일/6일 (출발일: 수,목 출발 5일 / 토,일 출발 6일) 7월~9월 999,000원부터 출발일별 요금 상이</p>	<p>부산출발</p> <p>28만원상당 특선포함 특급호텔/모두투어전독 아쿠아스파 나트랑/달랏 5일 (출발일: 매일출발) 7월~9월 729,000원부터 출발일별 요금 상이 #1일1간식 #케이볼카 #달랏야시장 #레일바이크 #랑비양전망대 #전신마사지</p> <p>청주출발</p> <p>백두산(연길직항)/서파+북파 4일/5일 (출발일: 금요일출발 4일 // 월요일출발 5일) 4일 7월~9월 789,000원부터 출발일별 요금 상이 5일 7월~9월 899,000원부터 출발일별 요금 상이</p>
--	---	--	---

모두투어 예약센터 가자항공여행사 T. 1544-7535, 747-0404

*공동사항 - 왕복항공권, 전일정호텔(2인1실), 관광지입장료, 일정의 식사포함, 최소 10명 출발가능, 인솔자동행(부분별), 유류할증료포함, 1억원 여행자보험 - 불포함 - 비자대(부분별), 기사/가이드경비 (부분별), 현지선택관광

고객센터: 064-747-0404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김현주 (연동투어예약팀) 대표: 유승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용산로 16 번(백남당 5층) 사업자등록번호: 2022-81-45295 통신번호(대표번호): 02-30030000 관광사업자등록번호: 1989-04서울특별시 중구 영일보증보험: 일반여행업보증 15억, 14만원, 기획여행보증 7억원, 여행자보험 1억원 기업 출발지: 제주공항 교통: 항공/전원차량 숙소: 항공호텔(이성동) 일정에 준함 식사: 상등에 포함된다. 자유일정시 분도항 최소출발 기준인원: 5인(상등호텔 상이) 선택관광(선택관광: 상품에 따라 선택관광이 발생될 수 있음, 선택관광 참여유무는 자유로워 선택할 수 있으며, 미참여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관광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ototour.com)를 참고하십시오. 가이드 및 기사요금: 현지 별도 지불(수입환율제외) 부속인원에 의해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여행상품 가격 포함 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관광교통비, 관광인원 개별 기차, 여행보험료, 식사요금, 현지관광지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포함해야 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